

울산 일부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김지희[†]
미그린치과

A Study on the Job Stress Factors of Dental Hygienists

Ji-Hee Kim[†]

Mi-Green Dental Clinic, 1479-5 Samsan-dong Nam-gu Ulsan 680-815,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dental hygienists's stress in order to provide dental hygienists's stress management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 sample of 168 dental hygienists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e participate of 66.1% was under 25 old years and 87.5% was unmarried. A majority of he dental hygienists's job place was clinical areas 86.9% and working experience was 1~4 years (47.6%).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salary was 1,000,000~1,500,000 won/month (63.7%).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working time was under 8 hours/day (57.1%). 5days/week (58.3%) was working and the participate of 78.0% was working on night-time. 2. Dental hygienists's stress under 25 years old was higher than over 26 years old ($p < 0.05$). It was found that dental hygienist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stress from less income ($p < 0.05$), longer working time ($p < 0.01$). In job demand areas, Night-time workers ($p < 0.05$) and 5days/week ($p < 0.05$) worker was more stress than others participates. In job autonomy areas, longer working experience in present dental clinical($p < 0.01$) and higher salary/month ($p < 0.01$) were more stress. The job instability of unmarried dental hygienists were more stress than married subjects. In stress of organization system, longer working time/day ($p < 0.05$), under 25 years old ($p < 0.01$), high salary ($p < 0.05$), 5day/week ($p < 0.05$) dental hygienists's stress was higher than others.

Key words Dental clinic, Dental hygienists, Job stress

서 론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사이다. 학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보면 Selye¹⁾는 “생체 내에 원인 모르는 변화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구성된 특별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상태”라고 하였고 Mechanic²⁾은 “어떤 환경 내에서의 개인의 불변”이라 하였다. 현대 산업사회를 살고 있는 조직구성원은 일생을 통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절반의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어느 정도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순기능적인 경우도 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조직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에 나타나는 역기능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을 개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갖게 되며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누구나 특별히 직업 또는 직장

과 관계하여 장래성, 안정성, 적응성, 동료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데³⁾ 직업적 수행, 만족 및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최근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했으며 이것은 직업적 스트레스증후군 또는 직업적 소진(job burnout)이라고 불리고 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에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질병, 슬픔, 상실, 공포, 심지어 즐거움과도 연결되는 것이며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으로 평형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여 긴장과 욕구불만 및 불유쾌함이 일어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긴장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힘으로 정의했으며 내적 혹은 외적인 스트레스요인에 의해 생겨난 스트레스는 발전하게 되며 이것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나 정도의 것이면 잘 적응하게 되나 대처에 실패하게 되면 부적응 상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⁴⁾.

더구나 사회가 현대화되어 갈수록 사회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져 가치관과 실생활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면서 환경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정신건강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그렇게 됨으로서 신체적 건강에도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⁵⁾.

[†]Corresponding author
Tel: 052-225-2828
Fax: 052-225-9700
E-mail: kjh3651@hanmail.net

스웨덴의 보건위원회는 고위험군 노동자로 보건의료 및 간호직 종사자, 운송 사업 종사자, 육체노동 종사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조직설계와 조직변화, 대책 수립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며 직장에서 의사 결정권한이 낮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⁶⁾. 병원 종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막대한 개인적, 조직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조직적인 수준에서는 이직과 결근율의 증가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져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적 수준에서는 직무 불만족의 증가, 알코올과 약물 남용, 다양한 신체적문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병원 종사자의 직업성 스트레스로 인한 의료 이용 및 보상비용 등을 절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⁷⁾. 병원 종사자의 스트레스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받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준다⁸⁾.

인간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의사나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종사자들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여 지나친 스트레스로 생산성감소 및 효율성의 감소를 초래하고 직업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켜 양질의 업무의 수행이 어려워지게 된다⁹⁾.

현대에 이르러 국민의 경제생활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기관이 전문화와 세분화 되면서 질적 또는 양적으로 유능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 구강병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구강보건진료의 수요가 늘어나 지역사회주민들의 관심도와 정부차원의 구강보건정책전환, 구조조정 등으로 치과위생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¹⁰⁾. 이러한 시점에서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능력도 과거의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에서부터 오늘날 예방, 교육, 대인관계기술,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전환이 되는 등 치과 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고 있으며¹¹⁾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에서도 복잡한 인간관계나 근무조건 및 구강진료대상자의 서비스 욕구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치과 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¹²⁾.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업무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관련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원인 해소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2008년 3월에서 2008년 5월에 일부 치과진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of measurement

	구분	문항 수	Alpha
Job Stress	Physical environment	3	0.51
	Job demand	8	0.75
	Insufficient job control	5	0.62
	Interpersonal conflict	4	0.71
	Job instability	6	0.51
	Organizational system	7	0.75
	Lack of reward	6	0.66
	Occupational climate	4	0.68
	Job stress	43	0.84

2. 연구방법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치과종사자들의 스트레스요인 영역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기본형¹³⁾을 사용하였다. 문항별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과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8개영역 43문항으로 나누어 총 52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Table 1).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치과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68명 중 연령은 25세 이하가 66.1%였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87.5%로 기혼 12.5%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근무분야는 진료담당이 86.9%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진료담당이 13.1%였다. 현 직장 근무경력별로는 1~4년 미만이 4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7년 미만 22.0%, 1년 미만 21.4%, 7년 이상 8.9% 순이었으며 월평균 보수는 100~150만원 미만이 63.7%로 가장 많았고 150~200만원 미만이 26.8%, 200만원 이상이 9.5% 순으로 나타났고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8시간 이하가 57.1%로 가장 많았고 9시간이 29.2%, 10시간 이상이 13.7%였다. 주 5일 근무 실시하는 경우가 58.3%, 실시 안하는 경우가 41.7%였으며, 야간 진료는 실시하는 경우가 78.0%, 실시 안하는 경우가 22%였다(Table 2).

2. 물리환경 스트레스

치과위생사들의 물리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87로, 치과 종사

Table 2. Gener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Age	under 25 old years	111(66.1)
	over 26 old years	57(33.6)
Marriage status	unmarried	147(87.5)
	married	21(12.5)
Dental hygienists's job place	clinical areas	146(86.9)
	non-clinical areas	22(13.1)
Working experience	below 1years	36(21.4)
	below 1~4years	80(47.6)
	below 4~7years	37(22.0)
	over 7years	15(8.9)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salary	below 100~150won/month	107(63.7)
	below 150~200won/month	45(26.8)
	over 200won/month	16(9.5)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working time	under 8 hours/day	96(57.1)
	9 hours/day	49(29.2)
	over 10hours/day	23(13.7)
5days/week working	yes	98(58.3)
	no	70(41.7)
Night-time working	yes	131(78.0)
	no	37(22.0)
	Total	168(100.0)

자들은 물리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물리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미혼이 기혼보다, 진

료 담당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물리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월평균 보수가 적을수록($p < 0.05$),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물리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Table 3).

3. 직무요구 스트레스

치과위생사들의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61로, 치과 종사자들은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가 진료 담당 종사자보다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야간 진료를 실시하는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Table 4).

4. 직무자율 스트레스

치과위생사들의 직무자율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53으로, 치과 종사자들은 직무자율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다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세 이상이 25세 이하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비진료담당이 진료담당보다, 직무자율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현 직장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월평균 보수가 많을수록 직무자율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p < 0.01$, Table 5).

Table 3. Physical environment

	Variables	N	mean±sd	F, t
Age	under 25 old years	111	2.91±0.39	2.047*
	over 26 old years	57	2.78±0.39	
Marriage status	unmarried	147	2.88±0.38	0.944
	married	21	2.79±0.47	
Dental hygienists's job place	clinical areas	146	2.94±0.35	0.848
	non-clinical areas	22	2.87±0.43	
Working experience	below 1years	36	2.88±0.38	0.541
	below 1~4years	80	2.88±0.41	
	below 4~7years	37	2.83±0.44	
	over 7years	15	2.82±0.28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salary	below 100~150won/month	107	2.91±0.38	2.879*
	below 150~200won/month	45	2.84±0.39	
	over 200won/month	16	2.67±0.40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working time	under 8 hours/day	96	2.79±0.37	4.590**
	9 hours/day	49	2.97±0.34	
	over 10hours/day	23	2.99±0.51	
5days/week working	yes	98	2.86±0.37	-0.199
	no	70	2.88±0.43	
Night-time working	yes	131	2.87±0.40	0.085
	no	37	2.87±0.38	
	Total	168	2.87±0.39	

* $p < 0.05$, ** $p < 0.01$.

Table 4. Job demand

	Variables	N	mean±sd	F, t
Age	under 25 old years	111	2.63±0.35	1.293
	over 26 old years	57	2.56±0.34	
Marriage status	unmarried	147	2.61±0.34	0.000
	married	21	2.61±0.39	
Dental hygienists's job place	clinical areas	146	2.61±0.35	-0.094
	non-clinical areas	22	2.61±0.34	
Working experience	below 1years	36	2.49±0.28	1.868
	below 1~4years	80	2.65±0.36	
	below 4~7years	37	2.62±0.38	
	over 7years	15	2.63±0.26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salary	below 100~150won/month	107	2.60±0.33	0.172
	below 150~200won/month	45	2.63±0.41	
	over 200won/month	16	2.58±0.28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working time	under 8 hours/day	96	2.56±0.31	1.877
	9 hours/day	49	2.65±0.37	
	over 10hours/day	23	2.60±0.34	
5days/week working	yes	98	2.65±0.34	1.943*
	no	70	2.55±0.35	
Night-time working	yes	131	2.64±0.33	2.162*
	no	37	2.50±0.38	
Total		168	2.61±0.35	

*p < 0.05.

Table 5. Insufficient job control

	Variables	N	mean±sd	F, t
Age	under 25 old years	111	2.51±0.37	-0.841
	over 26 old years	57	2.56±0.32	
Marriage status	unmarried	147	2.51±0.35	1.168
	married	21	2.61±0.33	
Dental hygienists's job place	clinical areas	146	2.51±0.35	1.725
	non-clinical areas	22	2.65±0.33	
Working experience	below 1years	36	2.38±0.38	4.155*8
	below 1~4years	80	2.53±0.35	
	below 4~7years	37	2.61±0.31	
	over 7years	15	2.69±0.24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salary	below 100~150won/month	107	2.46±0.34	5.944**
	below 150~200won/month	45	2.65±0.34	
	over 200won/month	16	2.64±0.34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working time	under 8 hours/day	96	2.49±0.37	1.092
	9 hours/day	49	2.57±0.32	
	over 10hours/day	23	2.57±0.31	
5days/week working	yes	98	2.56±0.34	1.360
	no	70	2.48±0.37	
Night-time working	yes	131	2.53±0.34	0.568
	no	37	2.50±0.37	
Total		168	2.53±0.35	

**p < 0.01.

5. 관계갈등 스트레스

치과위생사들의 관계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결과는 4 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0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하가 26세 이상이 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진료담

당 종사자가 비 진료담당 종사자보다 관계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현 직장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월평균 보수가 적을수록 관계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6).

Table 6. Interpersonal conflict

	Variables	N	mean±sd	F, t
Age	under 25 old years	111	3.04±0.37	1.666
	over 26 old years	57	2.94±0.33	
Marriage status	unmarried	147	3.01±0.34	1.070
	married	21	2.93±0.49	
Dental hygienists's job place	clinical areas	146	3.02±0.38	1.725
	non-clinical areas	22	2.94±0.20	
Working experiece	below 1years	36	3.06±0.37	0.308
	below 1~4years	80	3.00±0.35	
	below 4~7years	37	2.98±0.40	
	over 7years	15	2.98±0.35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salary	below 100~150won/month	107	3.02±0.39	0.430
	below 150~200won/month	45	2.99±0.29	
	over 200won/month	16	2.94±0.36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work- ing time	under 8 hours/day	96	3.03±0.35	0.383
	9 hours/day	49	2.98±0.32	
	over 10hours/day	23	2.98±0.47	
5days/week working	yes	98	3.04±0.35	1.421
	no	70	2.96±0.38	
Night-time working	yes	131	3.01±0.35	0.141
	no	37	3.00±0.40	
Total		168	3.01±0.36	

Table 7. Job instability

	Variables	N	mean±sd	F, t
Age	under 25 old years	111	2.31±0.31	1.321
	over 26 old years	57	2.25±0.31	
Marriage status	unmarried	147	2.31±0.30	2.263*
	married	21	2.15±0.36	
Dental hygienists's job place	clinical areas	146	2.29±0.32	0.077
	non-clinical areas	22	2.29±0.27	
Working experiece	below 1years	36	2.29±0.33	0.160
	below 1~4years	80	2.29±0.34	
	below 4~7years	37	2.31±0.24	
	over 7years	15	2.24±0.27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salary	below 100~150won/month	107	2.31±0.30	2.622
	below 150~200won/month	45	2.31±0.36	
	over 200won/month	16	2.13±0.17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work- ing time	under 8 hours/day	96	2.33±0.29	2.537
	9 hours/day	49	2.27±0.32	
	over 10hours/day	23	2.18±0.34	
5days/week working	yes	98	2.32±0.31	1.254
	no	70	2.26±0.31	
Night-time working	yes	131	2.30±0.29	0.395
	no	37	2.27±0.39	
Total		168	2.29±0.31	

*p < 0.05.

6. 직무 불안정 스트레스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29로 미혼이 기혼보다 직무 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25세 이하가 26세 이상이 보다, 진료담당 종사자가 비진료담당 종사자보다,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야간 진료를 실시하는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직무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7).

7. 조직체계 스트레스

치과위생사들의 조직체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70으로, 치과 종사자들은 조직체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Table 8. Organizational system

	Variables	N	mean±sd	F, t
Age	under 25 old years	111	2.68±0.33	0.694
	over 26 old years	57	2.72±0.31	
Marriage status	unmarried	147	2.70±0.32	0.253
	married	21	2.68±0.37	
Dental hygienists's job place	clinical areas	146	2.69±0.34	-0.658
	non-clinical areas	22	2.74±0.26	
Working experience	below 1years	36	2.79±0.24	2.296
	below 1~4years	80	2.64±0.36	
	below 4~7years	37	2.67±0.33	
	over 7years	15	2.80±0.26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salary	below 100~150won/month	107	2.68±0.34	1.001
	below 150~200won/month	45	2.71±0.31	
	over 200won/month	16	2.79±0.32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working time	under 8 hours/day	96	2.70±0.32	3.579*
	9 hours/day	49	2.62±0.36	
	over 10hours/day	23	2.84±0.24	
5days/week working	yes	98	2.73±0.32	1.344
	no	70	2.66±0.34	
Night-time working	yes	131	2.68±0.33	1.664
	no	37	2.78±0.32	
Total		168	2.70±0.33	

* p<0.05.

Table 9. Lack of reward

	Variables	N	mean±sd	F, t
Age	under 25 old years	111	2.55±0.30	0.025
	over 26 old years	57	2.54±0.26	
Marriage status	unmarried	147	2.53±0.30	1.669
	married	21	2.64±0.20	
Dental hygienists's job place	clinical areas	146	2.55±0.30	0.117
	non-clinical areas	22	2.54±0.24	
Working experience	below 1years	36	2.62±0.29	1.675
	below 1~4years	80	2.54±0.31	
	below 4~7years	37	2.47±0.25	
	over 7years	15	2.58±0.20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salary	below 100~150won/month	107	2.55±0.31	0.918
	below 150~200won/month	45	2.51±0.25	
	over 200won/month	16	2.63±0.29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working time	under 8 hours/day	96	2.55±0.27	0.346
	9 hours/day	49	2.52±0.33	
	over 10hours/day	23	2.58±0.30	
5days/week working	yes	98	2.54±0.29	-0.022
	no	70	2.55±0.30	
Night-time working	yes	131	2.54±0.30	-0.758
	no	37	2.58±0.23	
Total		168	2.44±0.29	

다. 26세 이상이 25세 이하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비진료 담당 종사자가 진료담당 종사자보다,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야간 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종사자가 실시하는 종사자보다 직무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현 직장 근무경력, 월평균보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조직체계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Table 8).

8. 보상 부적절 스트레스

치과위생사들의 보상 부적절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44로, 치과 중

사자들은 보상 부적절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기혼이 미혼보다, 진료담당자가 비진료담당 보다, 주 5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종사자가 실시하는 종사자보다, 야간 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종사자가 실시하는 종사자보다 보상 부적절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9).

9. 직장 문화 스트레스

치과위생사들의 직장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15로, 치과 종사

자들은 직장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직장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미혼이 기혼보다, 진료담당이 비진료담당보다 직장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보수가 많을수록,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종사자보다 직장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p < 0.05$, Table 10).

10. 스트레스 영역별 상관관계

스트레스 영역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자율 영역은 관계갈등($p < 0.01$), 조직체계($p < 0.05$), 보상부적절

Table 10. Occupational climate

Variables	N	mean±sd	F, t	
Age	under 25 old years	111	2.22±0.49	2.374**
	over 26 old years	57	2.03±0.53	
Marriage status	unmarried	147	2.18±0.51	1.727
	married	21	1.98±0.51	
Dental hygienists's job place	clinical areas	146	2.16±0.52	0.629
	non-clinical areas	22	2.09±0.40	
Working experience	below 1years	36	2.21±0.35	0.935
	below 1~4years	80	2.14±0.57	
	below 4~7years	37	2.20±0.53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salary	over 7years	15	1.97±0.46	3.782*
	below 100~150won/month	107	2.22±0.50	
	below 150~200won/month	45	2.11±0.46	
A average dental hygienists's working time	over 200won/month	16	2.86±0.58	1.051
	under 8 hours/day	96	2.20±0.51	
	9 hours/day	49	2.07±0.56	
5days/week working	over 10hours/day	23	2.14±0.38	1.883*
	yes	98	2.22±0.45	
Night-time working	no	70	2.07±0.58	1.088
	yes	131	2.18±0.52	
Total		168	2.15±0.51	

* $p < 0.05$, ** $p < 0.01$.

Table 11. Correlation of stress factors

Variables	Insufficient job control	Interpersonal conflict	Job instability	Organizational system	Lack of reward	Occupational climate	Physical environment	Job demand
Insufficient job control	1							
Interpersonal conflict	0.227**	1						
Job instability	-0.038	0.186**	1					
Organizational system	0.161*	0.369**	0.082	1				
Lack of reward	0.179**	0.214**	0.098	0.540**	1			
Occupational climate	-0.137*	0.067	0.120	-0.176**	-0.149*	1		
Physical environment	0.198	0.127	-0.022	-0.149**	0.002	0.448**	1	
Job demand	0.442**	-0.295**	0.229**	-0.370**	-0.181**	0.247**	0.105	1

* $p < 0.05$, ** $p < 0.01$.

($p < 0.01$), 직장문화($p < 0.05$), 직무요구($p < 0.01$)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관계갈등 영역은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무요구와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1$). 직무불안정은 직무요구와 조직체계는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물리환경, 직무요구($P < 0.01$)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보상부적절은 직장문화($P < 0.05$), 직무요구($P < 0.01$)와 직장문화는 물리환경, 직무요구와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1$, Table 11).

고 찰

정신보건학적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질환 및 심신증과 디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자(정신과적 질환)가 주로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전될 수 있다면, 후자(심신증, 디스트레스)는 주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사회 심리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심신증이나 디스트레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나 스트레스성 사건의 경험 그리고 만성적인 긴장 등과 같이 사회구조의 틀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인간들간의 상호작용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장에서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 업무과중, 업무의 자율성(결정권한)의 결여, 역할 모호성, 보상 부적절, 비합리적 권위적 직장문화 등과 같은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가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⁴⁾. Locke¹⁵⁾는 직무에 따르는 스트레스요인으로 직무자체, 임금, 승진 및 기회, 안전성, 복지후생, 작업환경, 동료, 회사 경영방침 등 이라고 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스트레스가 20세기에서 가장 심각한 보건문제라고 하였으며, 미국에서는 결근, 생산성 감소, 보상소송, 보험, 직접의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였고 영국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GNP의 10%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¹⁶⁾. 또한 스트레스는 연령, 사회적, 지리적 여건 등과 광범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5-10%는 이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실제로 직장은 스트레스의 여러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과도의 스트레스는 기업에 대한 영향도 지대한 것으로서 스트레스는 결근율, 생산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의료비와 산재보상비도 상승시키며 비생산적이기 쉽고 결근율이 높으며 직업을 전환하려는 경향이 많게 된다고 하였다¹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여 구강보건 전문가로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과 의료서비스 전달에 있어 좀 더 폭넓은 관계형성에 필요한 가치를 부여하고자 울산지역 일부치과위생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조사한바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물리환경으

로 인한 스트레스는 25세 이하가 26세 이상 보다 높았으며 월평균 보수가 적을수록, 하루 평균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높았다. 여기서 물리환경은 근무 장소의 청결도, 위험과 사고당할 가능성,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25세 이하로 나이가 적을수록 월급이 적으며 업무 미숙과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적응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김¹⁸⁾의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경력별 피로도 평균 호소율이 1년 이하에서 높은 호소율을 보인 것과 신¹⁹⁾의 조사연구에서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 및 최²⁰⁾의 조사연구에서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병원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이²¹⁾는 진료보조 인력의 적절한 인원 배치와 근무시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부 대형치과나 치과병원에서는 근무시간 조절에서 야간진료 등으로 근무시간이 연장될 경우 다음날 휴무를 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상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병원내부에서 정신적인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연장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직무자율로 인한 스트레스는 현 직장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월평균 보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이는 박²²⁾의 조사연구에서 자신의 업무에 자율성이 없는 경우에 현 직장에서의 근무연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직무 불안정에 인한 스트레스는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다. 미혼자가 기혼자 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은 결혼은 배우자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도움이나 신뢰감을 주어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었다²³⁻²⁵⁾.

직장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25세 이하가, 월평균 보수가 많을수록,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종사자가 높았다. 이것은 조²⁶⁾의 조사연구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직장 문화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과 일치한다. 이는 바뀐 직장분위기에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는 야간 진료를 실시하는 종사자와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종사자가 높았다. 야간진료업무는 1일 8시간 근로조건의 연장이므로 정신적·육체적인 피로감이 누적되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간업무에 따른 근무시간 조절이나 급여인상 등의 복지차원의 근무환경이나 조건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직원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는 대형치과나 치과병원에서는 적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개인치과 진료기관에서의 야간진료업무는 익일근무시간에 대한 사항들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발생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적정수준의 스트레스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므로 경영자의 구성원의 적정 스트레스관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조직원의 개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요 약

본 연구는 울산지역 일부 치과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파악하여 스트레스 주원인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조사한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168명 중 연령은 25세 이하가 66.1%였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87.5%였다. 업무영역에서 진료 담당이 86.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현 직장 근무경력별로는 1~4년 미만이 47.6%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보수는 100~150만원 미만이 63.7%,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8시간 이하가 57.1%였으며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58.3%, 야간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가 78.0%였다.
2.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물리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25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높았으며($p < 0.05$), 월평균 보수가 적을수록($p < 0.05$), 하루 평균근무시간이 길수록($p < 0.01$) 높았다.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는 야간 진료를 실시하는 종사자($p < 0.05$)와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종사자($p < 0.05$)가 높았다. 직무자율로 인한 스트레스는 현 직장 근무경력이 많을수록($p < 0.01$), 월평균 보수가 많을수록 높았고($p < 0.01$), 직무 불안정에 인한 스트레스는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다($p < 0.05$). 조직체계 스트레스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많을수록($p < 0.05$) 높았고, 직장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25세 이하가($p < 0.01$), 월평균 보수가 많을수록($p < 0.05$),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종사자가 높았다($p < 0.05$).

참고문헌

1. Selye H: The stress of life, a proposed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stress in the human organism. Ginn Custom Pub, Boston, 1979.
2. Mechanic D: The student under stress. The Free Press of Glencoe, New York, 1962.
3. Cross E: Work organization and stress, social stress. Adline Pub Co, Chicago, pp.20-100, 1970.
4. Ko SH: A comparative study on stress and adjustment method between psychopath and non-psychopath. Thesis for Master's Degree at Ewha Woman's University, 1979.
5. Lee SN: (A) study on life stress and patterns of coping in housewives of military families. Thesis for Master's Degree at

-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1.
6. Karasek RA: Health work "stress, productivity and the reconstruction of working life". New York Basic Books, 1990.
7. William J, Laurie B: A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program for hospital-based health care personnel. Health and Social work pp.183, 149-156, 1993.
8. Muldray T: "Burnout and health professionals". Manifestations and management, Norwalk CT, Appleton Century Crofts, 1983.
9. Lee JM: Causal result and countermeasure against job stress. Seongwonsa Co. pp.21-63, 1989.
10. Nam YO, Na YS: Factors affecting dental hygienists's stress at public health center in chonbuk provinc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7(2): 125-149, 2000.
11. Kang BW: A study on the causal factors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Korean dental hygienists case. Thesis for Doctor's Degree at Kyonggi University, 1999.
12. Jang GW: A study on duty stress in clinically dental hygienists. Collected Papers for Jinju Health College 20(1): 79-95, 1997.
13. Jang SJ, Ko SB: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Th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7(4): 297-317, 2005.
14. Chang SJ, et al.: Epidemiology of psychosocial distress in Korean employees. Korean J Prev Med 38(1): 25-37, 2005.
15. Locke E: The nature and cause of job satisfaction. hand 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 psychology. Chicago, Rand Menally Collage Pub. Co pp.111-140, 1976.
16. ILO: World labour report. Geneva, ILO 1993.
17. WHO: Health promotion for working populations. Expert committee, Geneva pp.26-29, 1988.
18. Kim YJ: A study on symptoms of fatigue perception in oral hygienists. Collected papers for Shingu College 9: 379, 1991.
19. Sin SH: Correlation between duty satisfaction and salary in dental hygienists. Collected papers for Jinju Health College 16(1): 34-42, 1993.
20. Choi MS: The factor of influence to stress in dental hygienist's work environment. Thesis for Doctor's Degree at Soonchunhyang University, 2006.
21. Lee SS: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dental hygienists'job stres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5(1): 151-163, 1998.
22. Park HS: Study on occupational stress and burnout experienced by dental hygienists. Thesis for Master's Degree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0.
23. Gove WR, Tudor JE: Adult sex role an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4): 812, 1973.
24. Kessler RC, Essex M: Mental status and depression : the importance of coping resources. Social Forces 10(3): 123-129, 1981.
25. Diener E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84.
26. Jo DR: Workers' job stress level and relevant factors-using short version in the measurement tool of job stress in Korean peopl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5(1): 61-63, 2006.

(Received October 3, 2008; Accepted December 12, 2008)

